

<동정자료>

김정렬 차관, “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 위한 전향적 협조” 강조

경기도 버스업계 현장 찾아 업계 의견 청취...노사정 상생 협조 당부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18일(금),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경기도, 버스업계 등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경기도와 버스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버스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다.
 - 이 날 현장점검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와 경기도 버스업체인 경진여객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었으며, 간담회에는 경기도 교통국장과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이사장, KD운송그룹 대표 등 18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참석한다.
-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“근로시간의 단축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운전자의 줄임운전 방지는 물론,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‘워라밸’의 구현과 업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”이라면서,
 - “그동안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노사정이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는다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 버스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”고 전할 예정이다.
- 특히, 김정렬 차관은 “버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버스업계에서도 전향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 “정부에서도 노선 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연차로 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현 운송서비스를 유지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”고 당부한다.

2018. 5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- ☐ 일시 : '18. 5. 18(금), 15:30
- ☐ 장소 :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(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5. 3층)
- ☐ 참석범위 : 경기버스조합 소속 18개 업체 대표 등 총 30명 내외
(업계 대표 수행 임원진 포함)
 - 국토부 : 제2차관님, 근로시간 단축 TF팀장, 대중교통과 사무관
 - 경기도 : 교통국장, 버스티eam장
 - 버스업계 : 조합이사장, KD운송그룹 등 18개 기업 대표, 임원진 등
- ☐ 점검내용 : 특례업종 제외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지자체 · 버스업계 준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
- ☐ 세부 진행계획(안)

< 업계 간담회 >

- 개회 및 참석자 소개
- 차관님 모두 말씀
- 경기도 대응현황 보고, 참석자 토론
 -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 등
- 차관님 마무리말씀, 폐회

< 현장방문 >

- 경진여객 이동
- 경진여객 현장 근로자 면담